

김민규 공격 선봉... 오심恨 푼다

'K리그2' 광주 FC 4일 부산 원정 펠리페 대신 나상호와 투톱 무조건 이겨야 PO 진출 불씨

'오심의 희생양'이 됐던 광주 FC의 김민규가 '난세의 영웅'을 꿈꾼다.

광주 공격수 김민규는 얼마 전 원지 않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난 10월 2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FC와의 33라운드 경기에서 김민규의 비극의 무대였다.

광주가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했던 이 경기에서 후반 13분 김민규가 투입됐다. 펠리페와 함께 김민규를 묶어 제공권을 강화하려는 게 박진섭 감독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김민규는 교체 투입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공중볼을 다투던 중 몸싸움이 발생했고, 주심이 김민규가 고의로 상대 조유민을 팔꿈치로 가격했다고 판단하며 레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비디오 판독까지 진행됐지만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다.

김민규의 퇴장과 함께 광주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고, 수적 열세 속에 광주는 0-2패를 당했다. 이 패배로 광주는 5위에서 7위까지 추락했고 플레이오프 꿈도 불거뿔이 되는 것 같았다.

'죄인'이 됐던 김민규의 이름은 며칠 뒤 다시 뜨겁게 회자됐다.

지난 23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심의 결과 김민규의 퇴장이 오심이었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다. 상벌위원회의 오심 결론에 따라 주심은 5경기 배정 정지의 징계를 받았고, 김민규는 퇴장 징계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이미 경기는 0-2패로 끝났고, 광주의 4강 길은 더 험난해진 뒤였다.

퇴장 징계가 철회되면서 김민규는 앞선 34라운드 FC 안양과의 경기에서 교체 출장, 2-1 승리에 힘을 보탤다. 이 승리로 광주는 살날같은 4강 불씨를 살려냈다.

김민규는 오는 4일 부산 원정에서는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

안양과의 경기에서 경고 카드를 받은 펠리페가 경고 누적으로 부산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안양전서 머리와 발로 두 골을 만들었던 펠리페의 부재는 광주에는 큰 아쉬움이다.

박진섭 감독은 펠리페의 공백을 김민규로 메우겠다는 생각이다.

184cm·75kg의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한 김민규는 제공권 싸움의 중심이다. 밸런스가 좋아 등지는 플레이에서 윗등 모습을 보이는 등 몸싸움에도 능하다. 강한 슈팅력도 가지고 있는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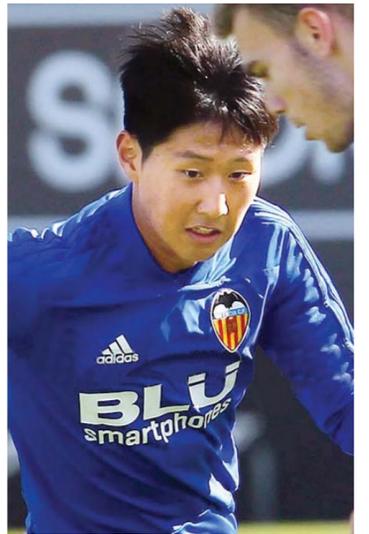
‘퇴장 오심’에 울었던 광주 FC 김민규(오른쪽)가 4일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경기에서 팀 승리의 중심에 선다. 사진은 김민규가 지난 7월 28일 성남 FC와의 홈경기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광주 FC 제공)

큼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광주에는 김민규의 활약이 절실하다.

‘오심 희생양’으로 눈물을 흘렸던 김민규가 두 아르테와 나상호와 좋은 호흡을 과시하면서 승

리의 세리모니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7세 253일 이강인 1군 데뷔



스페인 국왕컵 발렌시아 선발 한국 최연소 유럽 프로축구 출전 현지언론 ‘靑 선수 첫 데뷔’ 관심

한국 축구 유망주 이강인(17·발렌시아)이 한국 선수 역대 최연소로 유럽 프로축구 공식 경기 데뷔전을 치렀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의 이강인은 지난 31일 스페인 사라고사 에스타디오 데 라 로마레다에서 열린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 레이) 에브로와 32강 1차전에 선발 출전했다.

이강인이 1군 경기에 출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01년 2월 19일생인 이강인은 만 17세 253일(현지시간 기준)의 나이로 유럽 프로축구 데뷔전을 치러 남태희(알두하일)가 갖고 있던 데뷔 기록을 넘어섰다.

남태희는 2009년 8월, 18세 36일의 나이로 프랑스 리그앙에 데뷔했다. 이강인은 이를 약 5개월 앞당겼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 2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그는 후반 38분 알레한드로 산체스와 교체될 때까지 총 83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비록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출전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인상적인 장면도 여러 차례 선보였다.

후반 10분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시도한 왼발 슈팅은 골대 위를 맞고 나가 아쉬움을 남겼다.

스페인 주요 매체들은 이강인의 1군 정식 경기 데뷔를 비중 있게 다뤘다.

스페인 매체 AS는 “2001년생인 이강인이 1군 경기에 데뷔했다”라며 “아시아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1군 데뷔 경기를 치른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발렌시아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은 이강인을 신뢰하는데, 이미 이강인은 올 시즌 1군에서 많은 훈련을 소화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지 매체 마르카는 “17살 이강인이 데뷔전을 치렀다”라면서 “그는 프리시즌에 1군 경기 출전 기회를 잡으며 많은 기대를 모았다”라고 알렸다.

이강인은 2007년 국내 TV 프로그램인 ‘날아라 슛돌이’에 출연해 축구 자질을 인정받은 뒤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팀에 입단해 큰 화제가 됐다.

그는 발렌시아에서 무럭무럭 자라며 입지를 다졌다. 지난 7월엔 스위스 로잔 스포르와 프리시즌 경기를 통해 1군 무대에 출전했고, 8월 12일 독일 레버쿠젠과 프리시즌 경기에선 1군 첫 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프리시즌 연습경기에서 1군 분위기를 익힌 이강인은 코파 델레이 에브로 전을 통해 공식 경기 1군 데뷔전을 치렀다. 한편 발렌시아는 산티 미나가 후반 26분과 후반 35분 연속골을 터뜨려 2-1로 역전승했다. /연합뉴스

고진영, 쭈타누칸 타이틀 싸움이 막아라

내일부터 LPGA 토트 재팬 클래식 출전... 최저타상 역전 가능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만 대회에서 역전 우승의 기회를 아쉽게 놓친 ‘슈퍼루키’ 고진영이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한다.

고진영은 내달 2일부터 사흘간 일본 시가현 오츠의 세타 골프클럽(파72·6608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토트 재팬 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에 출전한다.

이미 올해 LPGA 투어 신인상을 예약한 고진영에겐 남은 시즌 또 다른 특명이 있다. 에리아 쭈타누칸(태국)의 타이틀 싸움을 저지하는 것이다.

쭈타누칸은 올해 LPGA 투어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한 선수다.

메이저 US여자오픈을 포함해 모두 세 번 우승했고 세계 랭킹 1위로 되찾았다. 3개 대회만을 남긴 이번 시즌 LPGA 투어 상금, 올해의 선수 포인트, 최저타수에서도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은 2위와의 격차가 커서 사실상 확정적이다. 그러나 배어 트로피가 주어지는 최저타수상은 뒤집을 여지가 있다. 쭈타누칸이 69.379타인데, 69.640타로 바로 뒤에서 쫓고 있는 선수가 고진영이다. 작지 않은 격차지만 역전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LPGA 투어에서 한 해에 신인상과 최저타수상을 모두 받은 선수는 단 2명뿐이었다. 1978년 낸시



로페스와 2016년 전인이다.

컷오프 없이 3라운드 54홀 경기로 치러지는 이번 토트 재팬 클래식 대회엔 올해 1승씩을 한 유소연과 김세영, 전인지, 지은희를 비롯해 김인경, 양희영, 김효주, 신지은 등 한국 선수들이 출전한다.

지난해까지 이 대회를 2연패 한 중국 평산산이 타이틀 방어에 나서고 지난주 대만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맛본 벨리 코르다(미국)도 기세를 이어간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선수 35명도 함께 경쟁한다.

이번 시즌 일본 무대에서 5승을 거둔 안선주는 2015년 이 대회 우승 이후 3년 만에 우승급 탈환에 나선다. 오랜만에 LPGA 무대에 서는 신지애를 포함해 활아름, 전미정, 이민영, 정재은, 배희경, 이지희 등도 국내외의 LPGA 투어 선수들과 함께 겨룬다. /연합뉴스

2020 여자 U-20 월드컵 유치 추진

대한축구협회 여자축구 활성화 기대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가 2020년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20세 이하(U-20) 월드컵 유치를 나섰다.

축구는 2020년 FIFA 여자 U-20 월드컵 개최를 위해 유치 의향을 FIFA에 밝히고, 대회 유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협회는 예산 9000만 원을 편성해 유치 계획서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31일 공고했다.

협회가 2020년 여자 U-20 월드컵 유치를 나선 건 작년 남자 U-20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데다 기존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설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자 U-20 월드컵을 개최

하면 침체한 여자축구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자 U-20 월드컵은 2002년 캐나다 원년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프랑스 대회까지 9차례 열렸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2004년 태국, 2012년 일본이 각각 개최했다.

협회는 내년 1월 18일까지 FIFA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며, 개최지는 내년 3월 FIFA 평의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허정재 감독이 이끄는 18세 이하(U-18) 여자 대표팀은 2020년 여자 U-20 월드컵 아시아 지역 1차 예선을 통과했다. 내년 4월 2차 예선이 열리는 가운데 최종예선을 통과하는 세 팀이 16개국이 겨루는 여자 U-20 월드컵 본선에 나간다. /연합뉴스

이승우 3경기만에 후반 출전... 팀은 0-1 패

이승우(베로나)가 후반 막바지 교체 투입으로 소속팀에서 3경기 만에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승우는 지난 31일 이탈리아 아스콜리 피체노에서 열린 아스콜리와의 2018-2019 세리에B(2부 리그) 10라운드 원정 경기에 후반 37분 안토니오 라구사를 대신해 출전했다.

10월 A매치를 앞두고 레제와의 7라운드에 시즌

첫 선발 출전했던 이승우는 국가대표 소집 복귀 이후 소속팀에서 두 경기 모두 결장했다가 모처럼 투입됐다.

이날 베로나는 0-0으로 맞선 가운데 마지막 교체 카드로 이승우를 기용했으나 후반 40분 미헬레 카비온에게 결승 골을 내주고 0-1로 졌다. 베로나는 승점 17을 쌓아 리그 3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